

성령의 열매(8) 충성 - 정직과 책임

누가복음 16 장 10-13 절

1.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2021 년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읽어 보니 공감이 되어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시겠습니까!

반성하며 잘 살겠습니다. 노여움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살다간 빵~ 돌겠습니다.

그럴 듯 하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공감이 됩니다. 특히 회개의 표현이 분명하죠. 아울러, 비록 우리가 잘못을 범했지만 **노여움을 거두어 달라는 고백**이 깊이 와 닿습니다.

2.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의문점을 혹시 가져 보셨나요?

왜 우리는 이처럼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냥 무조건 떼를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열매인 “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8. 충성 - 정직과 책임

우선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충성이란 어떤 것입니까?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충성 -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함

그렇습니다. **충성이란 내 주인에게 몸과 마음을 다 해 헌신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충성의 대상은 믿을 만하며 의지할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성은 그냥 증명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헌신하는 행동을 보여줄 때, 비로소 충성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사람이 됩니다.**

헌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앞서서 성령의 열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임을 확인했습니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모두 그 근본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렇다면 **충성이란 열매도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다만 우리말의 용례로 보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충성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표현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충성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신실함이란, 믿을만하며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랜 기간의 행동으로 증명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시편 33 편 4 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8. 충성 - 정직과 책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란 고백입니다. 시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 세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사라가 90 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3.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우리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떨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다시 구원하십니다.

여러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이방 신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 장 8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고, 이스라엘이 신랑되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음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역시 신랑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8. 충성 - 정직과 책임

우리는 **부부 관계에서 배신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지극히 신실하게 행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다른 신에게 마음을 주고 부정을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느끼신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품으십니다.**

호세아 6 장 1 절과 2 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비록 인간들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찢어진 우리를 다시금 낫게 하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절정에 이릅니다. **로마서 5 장 8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찢겨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4. 예수님의 신실하심 혹은 충성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충성하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 장 4 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기꺼이 껴안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뒤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 장 2 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믿음**”을 “**충성**”으로 바꿔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충성**”은 헬라어로는 동일하게 “**피스티스**”(pistis)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 절

8. 충성 - 정직과 책임

앞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요.

충성의 창시자(pioneer)요 완성자(perfecter)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충성의 개척자가 되시고, 충성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늘 충성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대로 충성하는 그 모범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본질상 충성이라는 성품에 너무나 빈약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충성의 열매가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읽고 싶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단 한 번의 받아들이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한 번만 영접하면, 이제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의 이해는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신실함” 혹은 “충성”이라는 의미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 이해했거나 혹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어원에 해당하는 “피스티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신실함 즉 충성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충성

이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신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신실할 것을, 즉

8. 충성 - 정직과 책임

충성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너희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희는 안전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네 자신을 부정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충성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 장 10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요? 11 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구절을 10 절과 연결해 보자면, **지극히 작은 것**이란 **“불의한 재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돈에 대해 충실한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성의 두 요소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정직**이고 또 하나는 **책임**입니다. **지극히 작은 돈에 대해 충실하다**는 것은 정직하게 돈을 관리한다는 의미와 함께, 동시에 이 돈을 필요한 이들과 나눌 줄 아는 책임감이 있는가를 말합니다.

8. 충성 - 정직과 책임

왜 그렇습니까? 돈은 불의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것을 취급할 때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면, 어찌 더 큰 것, 즉 하나님나라의 일을 맡기겠는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거나 찢찢매매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베풀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나라의 크고 비밀한 영적인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3 절은 단언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런 충성을 요청하십니다.

충성이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거나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책임으로 유일한 왕이 되신 주님만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

그렇다면 **충성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나 아세라를 마음에 품는 순간,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즉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충성의 반대말**입니다.

그럼 **충성의 위조품이 무엇일까요? 충성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충성이 아닌 모조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내 방식대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소에서 온갖 훈련을 받지요. 제식훈련, 체력훈련, 화생방 훈련, 사격훈련 등등

전투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훈련병이

화생방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피하면 됩니까? 당연히 곤란합니다. **훈련과정은 신병이**

8. 충성 - 정직과 책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공동체의 안내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성이란 일종의 훈련입니다. 충성은 훈련없이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에게 오직 우리 주님만 왕으로 섬기도록 다양한 훈련을 함께 합니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찬양 훈련, 말씀묵상 훈련, 봉헌 훈련, 봉사 훈련, 선교와 전도 훈련 등** 신앙생활 전반을 함께 훈련하게 됩니다.

헌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는 대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맛대로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특히 불편한 봉헌 훈련은 안하려고 합니다. 십일조 훈련은 안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해도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의 위조품이에요. 분명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의 위조품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어려울 때는 찬송가 393 장을 부르십시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